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대상으로-

주영은*

초록

본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 교육의 중요성과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교육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을 활용한 관용 표현 교수 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관용 표현 교육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킬 수 있고 한국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용 표현은 축자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한국 문화가 깊이 관여된 문화 어휘이므로 기존의 주입식 암기 교육과는 다른 효율적인 교수 방안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교수를 통해 학습자들은 관용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와 사용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 드라마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실제 일상생활과 가까운 담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용 표현 교수를 위한 좋은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용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학습자들에게 잘 알려진 드라마이므로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관용 표현 중 상황 맥락적인 이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을 선정하여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드라마 자료의 담화 맥락 속에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더빙과 같은 활동으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제어: 드라마; 관용 표현; 교육 자료; 한국어 교육

* 왕립쭈라롱컨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어학부, 한국어과, 전임교수, 이메일: Youngeun.j@chula.ac.th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idiomatic expression using Korean drama: Focusing on Crash Landing on You

Youngeun Joo*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idiomatic expression edu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idiomatic expression education using dramas and tries to suggest a teaching method for idiomatic expressions using the world-famous Korean drama <Crash Landing on You>. Idiomatic expression educ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improve learners' communication skills and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Since idiomatic expressions cannot be interpreted literally and are cultural vocabulary deeply involved in Korean culture, an efficient teaching method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morization-style education is required. Through effective teaching, learners understand the practical meaning and context of idiomatic expressions and use them naturally. Drama can be a good teaching material for effective teaching of idiomatic expressions because it arouses the interest of learners and provides a discourse context close to real life. <Crash Landing on You> is valuable as an educational material because it not only reflects Korean culture well, but also contains various idiomatic expressions and is a well-known drama to learners from many countries. Among

* Lecturer, Korean Section, Department of Eastern Languages, Faculty of Arts, Chulalongkorn University. e-mail: Youngeun.j@chula.ac.th

the idiomatic expressions shown in <Crash Landing on You>, expressions that can be effectively understood by the situation and context were selected and teaching methods for them were presented. Learners can infer the meaning of idiomatic expressions in the discourse context of drama material and improve their expression skills through activities such as dubbing.

Keywords: drama; idiomatic expressions; educational materials; Korean language education

1. 머리말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실제 일상 생활에 가까운 담화 맥락을 제공하는 드라마를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용 표현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관용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용 표현은 일반 어휘와 달리 사용할 때 청자나 담화 맥락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수자가 관용 표현을 가르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한 언어공동체의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관련된 관용 표현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해 시키기란 그 자체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로 말하는 한국어 4 책의 ‘유용한 표현’에는 속담이나 관용어가 소개되어 있지만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나 다른 자료 없이 텍스트만 제공된다. 서울대 한국어 4A 책은 ‘속담과 관용어’라는 하나의 단원을 따로 두어 삽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담화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상황 맥락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다. 이화 한국어 4 책은 매 단원마다 ‘관용 표현’ 부분을 마련해 다양한 관용 표현을 소개하고 있다. 담화상황과 함께 대화 완성하기와 같은 활동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와 비교했을 때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에 더 용이하다. 하지만 담화가 너무 짧고 텍스트만으로는 화자의 태도나 어조를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담화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용 표현 교수·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와 교수법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관용 표현 교수 방안으로 드라마 활용을 제안한다. 그간 드라마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었다. 선행 연구의 예로 조동주(2018), 송대현(2020), 윤은미, 우인혜(2017) 등을 들 수 있는데, 조동주(2018)는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향을, 송대현(2020)은 <도깨비>를 활용한 관용 표현 교육 방안을, 마지막으로 윤은미, 우인혜(2017)는 <꽃보다 남자>를 활용한 속담 교육을 연구했다. 이들 연구는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에는 실제와 가까운 담화 맥락을 제공하는 드라마 자료가 효율적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다.

K-드라마가 점점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중 말하기 교육이나 듣기 교육에 대한 연구 비중은 높은 반면 관용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직접 드라마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적다. 앞서 말한 관용 표현 교수·학습 자료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관용 표현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신의 드라마를 분석하여 드라마에 나타난 관용 표현 목록을 제시하고, 실제 교실 수업에서 드라마를 활용하여 관용 표현을 교육할 수 있는 수업 모형 및 교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용 표현 교육의 중요성

관용 표현은 일정 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어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다 (민현식, 2003, p. 18). 관용 표현은 단어 차원에서부터 구,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학자마다 이를 정의하는 범주가 다르다.¹

표 1.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 표현 교육 (유해준, 2022, p. 449)

학자	내용
심재기	·어휘 관용표현: 속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등 ·문장 관용표현: 속담, 고사성어, 금기담, 길흉담, 격언,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
양영희	결속언어, 속담, 속어
최경봉	관용어, 속담, 연어
민현식	·어휘: 고사성어, 유행어 ·구: 관용어구, 속어 ·문장: 수수께끼, 속담, 표어 ·텍스트: 고전 설화, 현대 유행담
박진호	속어, 속어 표현, 연어, 화용적 관용표현
신혜인	관용구, 속담 중 체언형 속담은 포함 (은어, 비속어, 유행어는 제외)
유해준·손경애	관용구, 관용구와 구분이 어려운 체언형 속담 포함

관용 표현은 축자적 의미가 아닌 제 3의 의미를 나타낸다. ‘제 3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 표현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또는 각 단어의 의미의 함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당 언어공동체의 사고방식, 역사 등 문화적인 요소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손혜진, 임형옥, 공하림, 2018, p. 320). 즉, 관용 표현은 표면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에 괴리가 있으므로 그 실제적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관용표현의 교수·학습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학습이 어렵다고 해서 관용 표현 교육을 한국어 교육에서 제외한다면 학습자는 원어민에 가까운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김선정, 강현자 (2006, p. 36)는 관용 표현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수행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지적한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는 무려 200 개 이상의 관용 표현이 등장한다.²

¹ 신조어 또는 줄임말과 같은 유행어나 한자성어가 단어 차원의 관용 표현이라 할 수 있다.

² 본고에서는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기타를 관용 표현의 범주로 설정하여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관용 표현을 목록화 하였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5 장을 보라.

일상 담화와 가까운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은 관용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 실제 의사소통에서도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관용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을 충분히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소통 능력 및 유창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용 표현 교육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모든 관용 표현 교육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관용 표현의 의미만 주입하는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관용 표현이 이해 표현을 넘어 사용 표현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관용 표현 교육이라야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용 표현 학습을 통해 해당 언어 국가의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용 표현 교육은 중요하다. 관용 표현은 한국의 문화가 투영된 문화 어휘로서, 관용 표현을 익힘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소양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공하림, 손혜진, 2020, p. 114). 이효정(2007, p. 17)은 관용 표현 중 하나인 속담은 오랜 세월을 걸쳐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 전통 문화를 구성하는 일부분임을 지적했다. 즉, 속담을 학습한다는 것은 그 속담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나 사고방식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도 함께 학습하는 것이다.³ 이와 같은 연구들은 관용 표현 교육이 한국 문화 이해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관용 표현 교육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한국 문화 이해도 향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의 뜻과 사용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3.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교육

3.1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교육의 효율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용 표현은 독자적 의미만 이해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관용 표현의 단편적인 의미 전달과 형식적인 이해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이은진, 권연진, 2018, p. 194). 뿐만 아니라 관용 표현 학습 시 사용되는 자료들은 시청각적으로 단조롭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적다(신지원, 김재욱, 2021, p. 306).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을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드라마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³ 속담뿐만 아니라 금기어 또한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관용 표현이다. 심계숙(2013, p. 715)은 금기어는 시대적·문화적 산물이며, 금기어 학습을 통해 그 속에 깃들여 있는 금기 문화 및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금기어를 한국 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드라마 자료는 영상, 소리, 이야기 등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용 표현의 특성상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을 어렵게 인식하는데,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긴장을 푸는 동시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용 표현의 사용 맥락 속에 놓이게 된다. 또한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K-pop이나 K-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활용한다면 학습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드라마 자료가 최신의 자료이고 크게 유행했던 작품이라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또한 드라마를 활용을 통해 교재의 부족함을 보완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교재들이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담화 상황이나 삽화와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교재에 제시된 삽화나 듣기 자료들도 이해의 접근성 면에서는 제한적이다(서수백, 2016, p. 331).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교재에서는 규범적인 어휘와 표현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구어적 특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제시하기가 힘들다(이혜경, 2019, p. 202). 즉, 실제적인 맥락, 화자의 표정, 억양이 빠진 자료들로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제 일상담화에 가까운 드라마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당 표현을 더 실감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어 학습자들 중 상당수가 매체에 익숙한 영상세대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영상세대 학습자들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하고 있으므로 매체를 활용한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유해준, 2019, p. 169). 또한 김경숙, 라혜민(2011, p. 476)에 따르면 영상세대는 기존의 문자세대와 달리 강렬한 시청각적 자극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구조화한다. 즉, 영상세대는 책의 텍스트 정보보다 드라마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제공되는 관용 표현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와 같은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도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중섭, 최은정(2017)에서는 담화 형태로 된 한국 대중문화의 노출이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담화 형태 대중문화에 노출되었던 학습자들과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3주간의 수업을 한 후 말하기 능력 향상을 비교했는데, 대중문화 노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유창성 부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비록 연구 대상이 취미 목적 학습자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학습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어 학습자들 중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취미 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즉, 관용 표현 교육을 위해 드라마 자료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은 담화 형태의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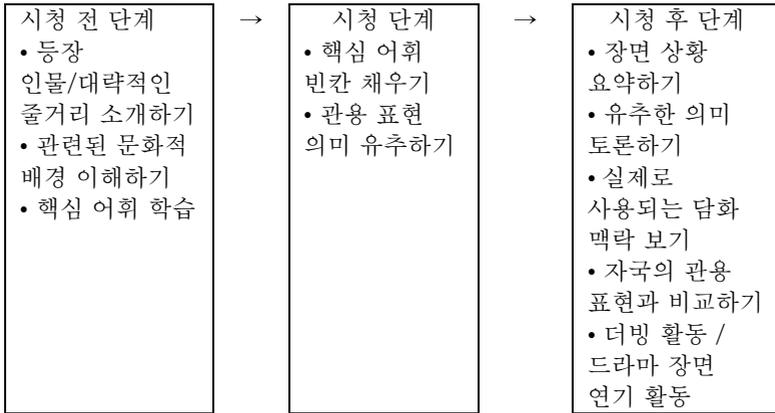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교육은 더빙이나 드라마 장면 연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수 있고 이는 학습자들의 구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더빙은 드라마 영상에 소리를 입히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더빙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를 반복적으로 듣고 말해야 한다(나은주, 나은영, 2018, p. 967). 배우의 입 모양과 속도를 그대로 모방해야 하므로 이는 한국 사람들의 현실 발음, 억양, 어조, 속도 등을 연습하기에 적합한 활동이다. 드라마를 통해 실제적인 맥락에서 관용 표현의 의미를 파악한 뒤 해당 장면으로 더빙 활동을 한다면 학습자들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수업 모형

표 2.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수업 모형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수업은 크게 시청 전, 시청, 시청 후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시청 전 단계는 드라마 자료를 보기 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시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드라마 등장 인물의 배경이나 성격을 소개하고 학습자들이 해당 장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줄거리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한 목표 관용 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여 해당 표현이 사용되는 장면의 맥락 파악을 돕는다. 핵심 어휘나 기타 어려운 어휘를 미리 학습하여 실제 시청 시에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의 의미 유추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청 단계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드라마 자료를 보는 단계이다. 먼저 자료를 2 회 보여 주고 난 후에, 핵심 어휘들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대본을 주고 학습자들이 다시 영상을 보면서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하게 한다. 관용 표현의 의미를 유추하거나 맥락을 파악할 때 필요한 어휘들을 빈칸으로 만들어 학습자들이 그 부분에 더 집중하게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관용 표현의 의미를 유추해 보기를 제안하면서 다시 영상을 시청한다.

마지막 단계인 시청 후 단계는 학습자들이 목표 관용 표현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도록

연습하는 단계이다. 시청을 마친 후 장면의 줄거리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자유롭게 얘기해 본다. 그리고 각자가 유추한 관용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토론한다. 목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잘 이해한 후 자국에 비슷한 의미의 관용 표현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더빙 활동은 수업 시간 내에 연습 시간을 주고 간략하게 해 보거나 학습자들이 긴 시간 동안 더 많이 연습하도록 프로젝트 과제로 주는 방법도 있다.

4. <사랑의 불시착> 선정 이유

매년 100 편 이상 쏟아져 나오는 한국 드라마 중에서 교육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⁴ 따라서 드라마 선정에 앞서 어떤 드라마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송대현(2020)이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표 3.

관용표현 교육을 위한 드라마 선정 기준 (송대현, 2020, p. 183)

번호	기준
1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관용표현, 비속어, 은어 등 구어표현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
5	해외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되는 익숙한 드라마여야 한다.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와 그녀를 안전하게 남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도와주다가 사랑에 빠지게 된 북한 장교의 사랑이야기다. <사랑의 불시착>의 여러 장면에는 다양한 한국 문화가 녹아 있는데 출소한 사람에게 두부를 주는 장면,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보는 장면, 축구 경기를 보며 치맥을 즐기는 장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분단의 역사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랑의 불시착>에서 이러한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삼팔선’이나 ‘○○을/를 모르면 간첩이다’와 같이 분단의 역사로 인해 생긴 어휘와 표현들이 등장하고, “막 고문하고 아오지 탄광 막 이런데 보내고 그러면 난 어떡해요?”와 같은 대사나 북한에 대해

⁴ 지상파,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을 모두 포함했을 때 2020년 한 해 동안 방영된 드라마는 총 116 편, 2021년에는 총 112 편이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종영 드라마 목록을 참조했다 (방영 종료 한국 드라마, 네이버, 검색일: 2022년 7월 5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qvt=0&query=%EB%B0%A9%EC%98%81%EC%A2%85%EB%A3%8C%ED%95%9C%EA%B5%AD%EB%93%9C%EB%9D%BC%EB%A7%88).

이야기할 때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인식도 엿볼 수 있다. 권나과 분마릿(2019)은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필수이며 학습자들이 현장에서 한국 문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경우 드라마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사랑의 불시착>이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하는 만큼 문화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랑의 불시착>은 남한 여자와 북한 남자의 사랑이라는 소재 자체도 신선하고 공주처럼 살아온 재벌 상속녀가 북한의 시골 마을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끼리의 일부 대화 장면들은 표준어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여자 주인공이 일관되게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랑의 불시착>은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의학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관용어부터 속담, 한자성어, 신조어, 비속어까지 다양한 표현들이 풍부하게 사용되므로 어휘 학습에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불시착>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에서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끈 대표적인 K-드라마다. 문화일보 기사 ‘K-드라마, 이젠 ‘넷플릭스’다’(김인구, 2020)에 따르면 <사랑의 불시착>은 방영 당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넷플릭스에서 시청 순위 1, 2 위였고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3 주 연속으로 1 위를 차지했다. YTN 기사 ‘사랑의 불시착’ 美 읍저버 선정 넷플릭스 콘텐츠 TOP10 진입’(최보란, 2020)은 미국의 주간지 읍저버가 발표한 코로나 19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TV 쇼 순위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6 위를 차지했다며 <사랑의 불시착>의 큰 인기를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랑의 불시착>은 여러 나라의 학습자들에게 이미 익숙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교육적 활용 가치를 지닌 드라마이며 송대현(2020, p. 183)의 드라마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5.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활용한 관용 표현 교수 방안

5.1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관용 표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용 표현을 분류하는 범주는 학자마다 다르지만⁵ 본고에서는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관용어는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관용어로 등재된 어휘를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했다. 속담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속담으로 등재된 어휘를 기준으로 했다. 한자성어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한자성어와 더불어 성어는 아니지만 관용적으로 쓰이는 4 자 한자어도 목록에 포함하였다. 기타는

⁵ 표 1 참고.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 담화에서 통용되는 단어 및 구 차원의 관용어나 신조어, 줄임말로 목록을 작성했고 인사말이나 연어는 제외했다.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1회에서 16 회까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220 개의 관용 표현을 찾을 수 있었다.

표 4.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관용 표현 어휘 목록

관용구	<p>발길(을) 꿩다, 손에 넘어가다, 목을 따다, 한배를 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이 날아가다, 종(을) 치다, 목이 붙어 있다, 혼이 나가다, 뼈가 빠지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게(를) 잡다, 땅이 꺼지게, 얼굴이 반쪽이 되다, 불 보듯 뻔하다, 녀(을) 놓다, 피가 끓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입이 쩍다, 사람(을) 잡다, 죽도 밥도 안 되다, 눈에 띄다, 뼈를 묻다, 치를 떨다, 손을 보다, 콩가루(가) 되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걱정도 팔자다, 한눈을 팔다, 줄초상이 나다, 양다리(를) 걸치다, 바람이 나다, 눈칫밥(을) 먹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억장이 무너지다, 만에 하나, 죽자 살자 하다, 낮이 없다, 입만 아프다, 눈치(를) 채다, 정신이 없다, 죽어라 하고, 속(을) 썩이다, 목을 매다, 뒤통수(를) 치다, 옛(을) 먹이다, 선수(를) 치다, 날을 받다, 피도 눈물도 없다, 보란 듯이, 유종의 미, 들었다 놓다, 날(을) 잡다, 지지고 볶다, 엮친 데 덮치다, 외국 물을 먹다, 기름을 붓다, 바람(을) 쐈다, 분위기(를) 잡다, 눈 딱 감고, 발목(을) 잡다, 줄(을) 대다, 맛장(을) 뜨다, 독(이) 오르다, 뒤통수(를) 맞다, 앞이 캄캄하다, 따 놓은 당상, 두말하면 잔소리, 한 치 앞을 못 보다, 털끝 하나, 한술밥(을) 먹다, 위아래(가) 없다, 한시가 급하다, 상다리가 부러지다, 결(을) 주다, 날이면 날마다, 약(을) 올리다, 마음을 먹다, 날로 먹다, 선을 넘다, 간이 콩알만 하다, 정신(을) 차리다, 신세(를)지다, 남야 일인 중천금, 입을 막다, 무릎(을) 꿇다, 얼굴(을) 들다, 발(을) 빼다, 쥐 죽은 듯(이), 혀를 깨물다, 언질(을) 주다, 눈(이) 높다, 딱 잘라, 자리를 뜨다, 불똥이 튀다, 눈물(이) 없이, 꿈(을) 깨다, 발(을) 뺀고 자다, 쌍심지(를) 켜다, 눈치(가) 빠르다, 마음이 무겁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다, 몸 둘 바를 모르다, 마음에 들다, 본때를 보이다, 소리 소문도 없이, 머리(를) 굴리다, 손(을) 내밀다, 맛(이) 가다, 머리(를) 쓰다, 눈치(를) 보다, 정신(이) 나가다, 손(이) 땀다, 축에 못 가다, 정신(이) 들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손을 떼다, 골로 보내다, 보통(이) 아니다, 마음에 두다, 마음(을) 쓰다, 말(을) 붙이다, 면목(이) 없다, 시도 때도 없이</p>
속담	<p>굵어 부스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 등잔 밑이 어둡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죽 쭈어 개 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 새 발의 피,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벼룩의 간을</p>

	내먹는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한 입으로 두말하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낫말은 새가 들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옷이 날개라, 쌀독에서 인심 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루 속의 송곳
한자성어	백발백중, 일생일대, 풍비박산, 우여곡절, 망연자실, 천하무적, 유언비어, 신신당부, 승승장구, 군계일학, 호형호제, 일석이조, 십중팔구, 일편단심, 이왕지사, 남녀노소, 당연지사, 인과응보, 우여곡절, 사방팔방, 위험천만, 잔학무도, 산전수전, 가가호호, 희로애락, 엄동설한, 호시탐탐
기타	코빼기를 비추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다, 죽으란 법은 없다, 모르면 간첩이다, 말귀가 어둡다, 백이면 백, 선(을) 긋다, 땡땡이치다, 심쿵, 쿨내, 밀밥 깔다, 눈치가 백단이다, 모양 빠지다, 탈덕, 험하다, 선빵을 날리다, 썸타다, 천추의 한, 말이 짧다, 물꼬를 트다, 발 연기, 찢다, 죄애, 간이 졸아들다, 노래를 부르다, 모태솔로, 입이 가볍다, 안물안궁, 콩고물이 떨어지다, 읽씹, 짜다, 꿀알바, 미우나 고우나, 피바람이 불다, 달달구리, 빼박이다, 등에 칼을 꽂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금 보기를 돌같이 하다, 머리가 하얘지다, 쓴 맛을 보다, 입이 무겁다, 고비를 넘기다, 입질이 오다, 껌이다, 걸바속죽

5.2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관용 표현 교수 방안

먼저 220 개의 관용 표현 중에서 상황 맥락적인 이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용 표현 11 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관용 표현이 등장하는 장면의 대본과 함께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를 모르면 간첩이다.

세리: (황당하다는 듯이) 날 설마 지금 간첩,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혁: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소.

세리: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저기요. 내가 간첩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지금 내 이름 얘기해 주면 검색해 보고 놀라 자빠질까 봐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데.

-2 회 중 (7:00)-

이 표현은 2 급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⁶ 시청 전 단계에서는 ‘간첩’, ‘검색하다’ 등의 어휘를 학습하고 한국에서 ‘간첩’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역사적 배경을

⁶ ‘A/V-(으)르까 봐’는 중급 문법이기 때문에 따로 의미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설명해 준다. 일반적으로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스파이’이다. 간첩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세리는 검색해 보면 깜짝 놀랄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 관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에요.’의 의미는 ‘간첩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정도로 볼 수 있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에서 ○○을/를 모르면 간첩이다’에 학습자들의 국가나 고향에 대입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2) 말귀가 어둡다.

치수: 이야, 남조선 대단하네. 어케 번지수도 안 틀리고 북조선 장교 집에 남조선 간첩을 정확히 메다꽂네?

세리: (답답한 듯이) 몇 번을 말하지? 이 사람 집인 거 몰랐고 간첩 아니고 메다꽂힌 적 없다고. 원래 말귀가 어둡고 이해력이 남달리 떨어지고 그래?

-2 회 중 (13:30)-

이 표현은 대사에 인용 표현과 피동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3 급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 시청 전 단계에서는 ‘번지수’, ‘메다꽂다’ 등의 어휘 학습이 필요하다. ‘말귀가 어둡다’에서 ‘말귀’는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충기’를 뜻한다. 즉, ‘말귀가 어둡다’라는 표현은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충명함이 없다’ 또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세리의 답답해 하는 표정과 ‘몇 번을 말하지?’라는 대사를 통해 학생들은 이 장면이 세리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임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해력이 남달리 떨어지고 그래?’라는 대사에서 ‘말귀가 어둡다’의 실제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이 표현이 쓰인 기사나 블로그 등을 보여 주어 학생들이 실제 맥락을 알 수 있게 한다.

3) 입이 짧다.

세리: 나 원래 아침을 잘 먹질 않아.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 먹더라도 정말 가볍게 캐나다산 유기농 오트밀에 역시 캐나다산인 유기농 메이플 시럽을 살짝 뿌려서 두어 스푼 정도.

치수: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뭐라는 거네?

세리: 너네 미술랭 모르지? 난 거기 별 받은 셰프의 식당에서만 저녁을 먹었거든. 근데 그 셰프들 소원이 내가 접시 다 비우는 거였어. (살짝 웃으며) 뭘 줘도 딱 세 입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별명이 짧은 입 공주였던 거지.

-4 회 중 (18:00)-

이 표현 역시 대사에 사동 표현이나 ‘A/V-더라도’와 같은 문법이 있으므로 3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하다. 시청 전 단계에서는 ‘유기농’, ‘비우다’와 같은 어휘를 학습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 중인 ‘간헐적 단식’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위 대화에서는 ‘입이 짧다’의 활용형인 ‘짧은 입’이 나온다. ‘입이 짧다’는 ‘음식을 적게 먹거나 가려 먹는 버릇이 있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첫번째 대사에서 세리는 아침 식사로 캐나다산 유기농 오트밀에 캐나다산 유기농 메이플 시럽을 뿌려 먹는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세리가 아무거나 먹지 않는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명한 셰프의 식당에서도 딱 세 입만 먹는다는 대사를 통해 세리가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위 장면은 ‘입이 짧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입’이 들어간 관용표현 중에서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이 가볍다’ 또는 ‘입이 무겁다’ 등으로 확장하여 교수할 수 있다.

4) 손을 보다.

영애의 생일잔치에서 각자 가져온 선물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다. 명순은 자기가 만들어 온 옷이 부끄러워 밑에 숨긴다.

세리: (명순이 만들어 온 옷을 들어 보이며) 어, 여기도 있네요, 선물.

명순: (당황하며) 아닙니다. 너, 너무 비루해 가지고...

세리: 비루하긴요? 딱 올해 전 세계를 휩쓴 패션 트렌드잖아요. 뉴트로.

영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응?

사람들 (웅성거리며): 뭔 트로? 뉴트로가 뭐네?

세리: (옷을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명순을 보며) 어떻게 제가 한번 살짝 손을 좀 봐도 될까요?

잠시 후 영애가 예쁘게 변한 옷을 입고 세리와 함께 방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옥금: 아니, 어케 그 나리옷이 이렇게 변신을 한 겁니까?

-4 회 중 (29:20)-

이 표현은 2급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표현이다.⁷ 시청 전 단계에서는 ‘비루하다’, ‘휩쓸다’ 등의 어휘를 학습하고 뉴트로 패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를 보여준다. ‘손을 보다’는 ‘물건을 고치다’라는 뜻이다. 제시된 장면은 명순이 만들어 온 옷을 세리가 고쳐서 같은 옷이 더 세련되게 변하는 상황이다. 이 드라마에서 세리는 패션 회사 오너이기 때문에 옷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세리가 명순이 가져온 옷을 들고 ‘손을 좀 봐도 될까요?’라고 물은 뒤 장면이 바뀌는데, 세리는 처음보다 세련된 모양으로 바뀐 옷을 영애에게 입힌 후 함께 방에서 나온다. 이 장면에서 학습자들은 세리가 옷을 고쳤음을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

⁷ 명순의 대사에서 ‘A/V-아/어 가지고’와 같은 구어 표현도 학습할 수 있다.

5) 균계일학

세리: (걱정하는 표정으로) 근데 나 안 들키고 잘할 수 있을까요?

정혁: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게 중요할 거요. 말도 아끼고.

세리: 아니, 난 그냥 숨만 쉬어도 눈에 띄고 돋보이고 균계일학이고 그런 편인데... (한숨 쉬며) 걱정이네...

-6 회 중 (14:27)-

제시된 대화에는 한자성어 ‘균계일학’이 나온다. 한자성어는 어휘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어휘로 간주되어 주로 고급 단계에서 소개되지만 제시된 대화를 보면 3급 수준의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시청 전 단계에서 ‘들키다’, ‘눈에 띄다’, 그리고 ‘돋보이다’와 같은 핵심 어휘를 학습해야 한다. ‘균계일학’은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인데 즉,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가리킨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각 글자의 뜻을 모른다면 ‘균계일학’이라는 한자성어만 놓고 봤을 때 그 의미를 유추하기란 쉽지 않은데, 위 장면에서는 세리라는 인물의 캐릭터와 대사를 통해 ‘균계일학’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항상 자신이 외모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세리가 자기 자신이 ‘눈에 띄고 돋보이고 균계일학’이라고 말하는 대사를 통해 학습자들은 ‘균계일학’이 뛰어나고 돋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은 ‘삼계탕’, ‘계란’에서 ‘계’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숫자 ‘일’과 500 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학’ 또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고급 단계의 학습자가 아닐지라도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이 표현이 쓰인 실제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연예 기사에서 연예인의 외모를 묘사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흥미와 이해 증진에 유용하다.

6)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세리: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나 이번에 진짜로 돌아가게 됐어요.

치수: 그러거나 말거나

주먹: (기대하는 표정으로) 또 무슨 선물 줘니까?

세리: 내가 산타클로스니? 내 수중에 돈 백 원이 없는데 무슨 선물을 또 줘?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6 회 중 (59:30)-

2급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표현이다. 시청 전 단계에서는 ‘벼룩’, ‘간’, ‘수중’과 같은 핵심 어휘를 학습하는데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위 장면에서 사용된 속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는 원형인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의 변형이다. ‘벼룩의 간’은 아주 적은 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벼룩의 간을 빼먹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뜯어낸다’는

의미이다. 서울에서와 달리 북한에서 세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특히 ‘내 수중에 돈 백원이 없는데’에서 세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 수 있다. 주먹이 ‘또 무슨 선물을 줍니까?’라고 말하며 세리가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자 세리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자신에게 선물을 바라는 주먹을 나무란다. 이 속담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처럼 명령형으로 흔히 쓰이는데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서 금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임을 학습자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시청 후에는 대화 완성하거나 더빙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7) 만에 하나

정혁은 총에 맞아 병원에 누워있다.

세리: 말해 봐요. 못 피한 거예요?

정혁: (헛웃음을 내며 돌아누우려고 한다)

세리: (정혁을 잡으며) 못 피한 거냐고.

정혁: (한숨을 쉬며) 안 피한 거지.

세리: 왜?

정혁: 내가 피했다면 당신이 맞았을 테니까.

세리: (한숨을 쉬며) 감동이긴 하네. 영화 같고. 근데 앞으로 그러지 마요.

뭐, 설마 또 그런 상황이 생기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멋있는 척하지 말고 꼭 피하라고.

-7 회 중 (43:40)-

위 대사를 보면 ‘N(이)냐고 하다’, ‘A-(으)ㄴ/V-는 척하다’ 등과 같은 3 급 또는 그 이상의 문법 항목들이 나오므로 3 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 시청 전에는 위 장면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려주어 학생들의 장면 이해를 돕는다. 위 대화에서는 세리가 자신을 대신해서 총을 맞은 리정혁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총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만에 하나’를 사용하였다. ‘만에 하나’는 ‘아주 매우 드뭇을 이르는 말’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 때 사용한다. 세리의 대사 중 ‘그런 상황’은 자신을 대신해서 총을 맞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설마 또 그런 상황이 생기진 않겠지만’에서 ‘그런 상황’이 아주 드물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그 후에 ‘만에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시청 후에는 이 표현이 사용된 실제 자료를 보여주거나 더빙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8) 옷이 날개라.

세리: 그리고 너네 내가 카드 마음껏 쓰라고 줬더니 별로 쓰지도 않아서 내가 너희 선물 하나씩 준비했어. 내가 또 패션 회사 오너 아니겠니? 옷 한 벌씩 선물해 주고 싶었어. 사이즈는 내가 눈대중으로 대강 봤는데 맞을지 모르겠다. 잠깐만.

잠시 후 대원들이 멋진 새 정장으로 갈아 입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세리: (감탄하며) 와, 옷이 날개다. 다들 너무 근사한데?

-14 회 중 (11:00)-

이 표현 역시 3 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며 시청 전에 ‘눈대중’, ‘근사하다’ 등과 같은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담화에는 속담 ‘옷이 날개라’가 ‘옷이 날개다’로 나타난다. ‘옷이 날개라’는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말’이다. 패션 회사 오너인 세리가 변변치 못한 옷을 입고 다니는 대원들에게 멋진 정장을 선물한다. 장면이 바뀌면서 새 옷을 입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세리가 ‘옷이 날개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다들 너무 근사한데?’에서 관용표현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즉, ‘좋은 옷을 입으니 훨씬 멋있고 근사해 보인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옷’이 들어간 속담 중에서 활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또는 ‘옷을 벗다’로 확장하여 교수할 수 있다.

9) 손이 땀다

승준: 내가 리정혁이라고 생각하고 뭐, 한 대 쳐. 그러면 좀 기분이 풀릴지도 모르잖아, 응?

단: 나는 동무가 리정혁이라고 생각하든 때릴 수 없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남자 때리고 기분 풀리는 여자도 있습니까?

승준: 그럼 그냥 나라고 생각하면?

단이가 주먹으로 승준의 배를 한 대 치고 승준은 아파하는 신음 소리를 내며 허리를 숙인다.

단: (손을 털며) 기러니까 까불지 말라.

승준: (아파하며) 우와 손이 너무 매워.

-14 회 중 (42:50)-

제시된 담화에는 인용 표현과 피동 표현이 있으므로 3 급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 시청 전에는 ‘때리다’와 ‘까불다’ 등의 어휘를 학습한다. ‘손이 땀다’는 ‘손으로 슬쩍 때려도 몹시 아프다’는 뜻이다. 이 담화 상황에서 단이 승준을 손으로 때렸고 승준은 아파하며 ‘손이 너무 매워.’라고 말한다. 학습자들은 단과 승준의 행동을 통해 ‘손이 땀다’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시청 후 단계에서는 ‘손’이 들어간 관용표현 중에서 비교적 의미 유추가 용이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손이 크다’, ‘손이 작다’, 또는 ‘손이 가다’로 확장하여 교수할 수 있다.

10) 머리가 하얘지다.

승준: 그래서 이 여자 앞에서는 나도 좀 착한 사람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은 팬찮다고. 팬찮은 여자야.

단: (승준의 위로를 듣고 눈물을 글썽인다)

승준: (당황하며) 이렇게 올면 나 진짜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이 안 나. 미치겠다니까.

-14 회 중 (45:10)-

‘ㅎ 불규칙’이나 ‘A-아지다/어지다’는 초급 문법이므로 이 표현은 2 급 이상의 학습자들이면 학습할 수 있다. 시청 전에 ‘생각이 들다’와 ‘생각이 나다’를 학습한다. ‘머리가 하얘지다’는 ‘당황하거나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다’의 뜻으로 쓰인다. 위 장면에서 승준은 단의 눈물을 보고 당황하며 ‘나 진짜 머리가 하얘져.’라고 말하는데, 뒤에 오는 ‘아무 생각이 안 나.’라는 대사가 ‘머리가 하얘지다’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관용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시청 후에는 ‘머리’가 들어간 관용 표현 중 ‘머리가 돌아가다’, ‘머리가 파뿌리가 되다’처럼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확장하여 교수할 수 있다.

11) 축에 못 가다.

세리: 내가 너무 속상해서 말이지. 나 수술 자국 때문에 앞으로 비키니 입긴 글렀잖아.

정혁: 비키니를 안 입으면 되잖군.

세리: (피식 웃으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엄지와 검지로 흉터 길이를 재서 보여주며) 흉터가 이만하다고.

정혁: 미안하지만 그 정도는 흉터 축에도 못 끼는 게 (셔츠를 들어 올려 등에 있는 큰 흉터를 보여주며) 이 정도는 꽤야...

세리: (깜짝 놀라며) 그게 뭐야? 칼자국이야?

-14 회 중 (51:00)-

제시된 대화에서는 관용표현 ‘축에 못 가다’가 ‘축에도 못 끼다’로 나타난다. 중급 문법 항목들이 있으므로 3 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 시청 전 단계에서는 위 장면의 배경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고 ‘수술’, ‘자국’, ‘그르다’, ‘흉터’와 같은 어휘를 학습한다. ‘축에 못 가다’는 ‘무엇이 부류의 내에 못 들다’의 의미이다. 위 대화에서 흉터 때문에 비키니를 입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세리에게 정혁은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의미로 ‘흉터 축에도 못 끼는 게’를 쓰고 있다. 즉, ‘그 정도는 흉터 축에도 못 끼는 게’는 ‘그 정도의 작은 흉터는 흉터 부류에도 들지 못한다’ 또는 ‘그 정도는 너무 작아서 흉터라고 부르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담화 상황과 정혁의 발화 태도를 통해 ‘축에도 못 끼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시청 후에는 여러 활동과 더불어 자국의 관용 표현 중에 유사한 표현이 있는지 토의해 본다.

6.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 표현 교육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불시착>을 활용한 관용 표현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관용 표현 교육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킬 수 있고 한국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관용 표현은 표면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에 괴리가 있고 문화적인 요소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교수·학습이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의 뜻과 사용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드라마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실제 일상생활과 가까운 담화 맥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고는 효과적인 관용 표현 교수 방안으로 드라마 활용을 제안하고 수업 모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쉬운 관용어에서 어려운 한자성어나 속담까지 다양한 관용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의 학습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220 개의 관용 표현 중 상황 맥락적인 이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 11 개를 선정하여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드라마 자료를 관용 표현 교육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220 개의 관용 표현 목록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이나 목록 중에서 학습에 적합한 교육용 관용 표현을 따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더빙 외에 관용 표현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했다면 더 유용한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공하림, 손혜진. (2020).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에 관한 고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5), 113-142.
- 김경숙, 라혜민. (2011).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59, 473-496
- 김선정, 강현자. (2006).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 32, 35-56.
- 김인구. (2020). *K-드라마, 이젠 '넷류'다*. 문화일보. Received August 8, 2022,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801031339179001>
- 김중섭, 최은정. (2017). 한국 대중문화 노출이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한글*, 318, 199-219.
- 나은주, 나은영. (2018). 더빙 프로젝트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 미국 대학생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965-976.
- 민현식. (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17-50.
- 서수백. (2016). 시트콤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연구: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을 대상으로. *인문논총*, 41, 307-334.

- 손혜진, 임형옥, 공하림. (2018). TV 드라마 대본을 통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사용 맥락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 319-340.
- 송대헌. (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 <도깨비> 속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181-191.
- 신지원, 김재욱. (2021).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수-학습 방안: 플립드 러닝과 TTT 모형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35(1), 305-322.
- 심재숙. (2013). 금기어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3, 685-720.
- 유해준. (2019). 매체 활용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경향 분석. *전남대 어문논총*, 34, 165-181.
- _____. (2022).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 표현 교육. *어문론집*, 89, 443-461.
- 윤영, 허연임, 권경미, 이을지, 최우전. (2011). *이화 한국어 4*.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윤은미, 우인혜. (2017). 한국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속담 교육 연구: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의 한국어 대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0, 213-245.
- 이은진, 권연진. (201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어 관용 표현의 상호문화적 교육 방안 연구. *언어과학*, 25(1), 193-216.
- 이정희 외. (2019). *바로 말하는 한국어 4*. 서울: 하우.
- 이혜경. (2019). 한국어 구어 능력 향상을 위한 대중매체 수업 방안 연구: 드라마 시청과 더빙 활동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0(3), 197-226.
- 이효정. (2007).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동주. (2018).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향: 관용표현, 신조어, 속어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란. (2020). *사랑의 불시착' 美 유희저버 선정 넷플릭스 콘텐츠 TOP10* 진입. YTN. Received August 8, 2022, from https://star.ytn.co.kr/_sn/0117_202005071506393728
- 최은규, 오미남, 유재선, 하신영. (2015). *서울대 한국어 4A*. 서울: 투판즈.
- 견나과 분마릿. (2019).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문화교류연구*, 8(3), 231-252.
- Netflix 공식 홈페이지. <사랑의 불시착> 영상 자료. Received August 1, 2022, from www.netflix.com

Received: August 15, 2022

Revised: November 1, 2022

Accepted: December 1, 2022